

# 장외집회·후쿠시마 방문...野4당 ‘日오염수 규탄’ 총공세

### 서울서 5만여명 참석 집회 “尹 정부, 오염수 테러 방조범”

### 국힘 “野, 오염수 괴담 가스라이팅...이재명 위한 정치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쇼’로 규정하며 비난전을 이어가는 등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대립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동’ 공동 주최로 집회가 열렸고, 주최 측은 집회 장소인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총 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며 “일본은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말한다. 권력은 잠시일 뿐 국민은 영원하다”며 “잠시 힘으로 누를지는 몰라도 절대 억압당하지 않는 게 국민이고, 그러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바다는 핵 오염수 투기 전과 후로 나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의 30년을 아니 한 세기를 보낼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에 ‘이런 카르텔’, 괴담 세력이라며 온

갖 악다구니를 퍼붓던 대통령이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쏘아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강성의 의원도 잇따라 연단에 올라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반면 같은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가스라이팅으로 수산업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다.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일관된, 농도 짙은 거짓이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켰다”며 “민주당은 내부 폐수 단속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 환경전쟁, 공동정범 등 이미 괴담 수준을 넘어 국민을 선동할 때 무자극적인 단어를 골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야당과 친야 단체가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는 ‘죽창가’ 공연으로 집회를 예고하며 반일 선동 전략을 선언했고, 내일은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일본 야당 주최 반대 집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니 지난 발일쇼에 이어 또다시 조종거리가 될 조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수산물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과도한 거짓 선동이 매일 이어지니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산물 불매 운동의 주축이 민주당”이라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등 야당 의원 4명이 27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고 강조했다.

한편, 전여육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자우림의 김윤아 씨를 직격했다.

김 씨는 SNS에 ‘RIP(Rest In Peace) 地球(지구)’라는 문구를 올리고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크 더너 +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날 지구에 대해 생각한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민주 연합회·워크숍...정기국회 전열 정비

### 입법·예산·국정감사 전략 마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29일 각각 정기국회·총선 대비 전략을 논의할 1박2일 행사를 연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 공사 인제개발원에서 연합회를, 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각각 개최한다.

양당 행사 모두 9월 1일 개최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다.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입법·예산 과제 추진과 국정감사 등에 ‘총력전’을 베풀고 있다.

국민의힘 연합회에서는 첫날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상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진행된다.

특강도 준비됐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짜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연합회 둘째 날 분임토의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연합회 역시 당정 간 협력을 강조하는 언급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재우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알리고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재우 입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예결위 간사인 강홍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초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 복구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론 지형 분석을 토대로 내년 총선 전략을 살피기 위한 외부 강사 강연을 진행한 후에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내용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몸 푸는 나경원·원희룡...국힘 ‘수도권 위기론’에 증진들 간판 내세우나

### 오세훈·안철수 등도 역할 기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증진 역할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앞 몸풀기’ 행보가 최근 잇따르자 이들처럼 수도권에 기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증진들이 간판으로 나서 ‘위기론’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 내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고 3·8 정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사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며 3번 연속 서울에서 당선된 나 의

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모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세미준)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총선 승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원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 가장 열세로 꼽히는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또 다른 중량급 여권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관련한 각종 정책적 뒷받침으로 수도권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키’를 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직후 재보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터를 잡은 안철수 의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중수창’(중도·수도권·청년)에 강점을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다는 점에서 총선 역할론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처럼 증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자 ‘한 몫’하는 힘을 한데 끌어모아서라도 ‘수도권 위기론’을 뚫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여권의 절박함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총선에서 지면 내일은 없다”며 “지금의 지렛대 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다극적군’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9월 광주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 제10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

9.07-11.07

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 시내 일원

### 2023 GWANGJU DESIGN BIENNALE

**본전시**  
주제전  
Main Exhibition

TECHNOLOGY Meet Design  
기술, 디자인을 만나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다

LIFESTYLE Meet Design  
삶을 바꾸는 디자인,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CULTURE Meet Design  
디자인이 함께 그려내는 K-Culture, K-Design

BUSINESS Meet Design  
글로벌기업의 디자인경영,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조적 만남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생태미술프로젝트  
자연 생태와 인간 공존의 새로운 관계 제시

국제 포스터디자인 초대전  
9.7~11.7

Design Nexus :  
호남디자인 오늘과 내일  
9.14~10.14

Design Meet People  
4명의 디자이너가 풀어내는 Meet Design 팝업전  
7.19~9.3

**국제 학술행사**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개막 심포지엄 Opening Symposium  
Design Meets Value, Trend, Future  
9.7. AM 11:00

디자인 포럼 Design Forum  
9.8. PM 13:00

디자인 토크 Design Talk  
9.9. PM 13:00

DBEW 포럼/DBEW Forum  
외재 미출판  
10.10. PM 16:00

**디자인 스폿**  
연계 기념전 외부 파빌리온  
Design Spot Pavilion

Design Meet 활자활판  
인쇄·출판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  
9.7~11.7

Re: 제 3의 물결  
조선대 정황정보통신편역물관  
9.7~11.7

순수의 결합, 공예 인연을 만나다  
공예디자인으로 문화적 결연을 제안  
9.7~11.7

양림예술정원여행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일대  
10.4~11.5

대지의 소리를 구담아 듣다  
한국현대미술사박물관  
8.28~10.7

사이언 - 사피엔스  
광주과학기술원 오펜아트홀  
8.28~10.31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Design Workshop

Designer's Workshop  
모모모 :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디자인비엔날레 in Metaverse  
메타버스 플랫폼

더 리틀 큐레이터  
유아교육기관, 비엔날레관

Meet & Play  
북구 아트메스티벌 연계 시민참여형 전시

**부대행사**  
Fringe Events

헤이바이어 초청 수송상담회  
김대중컨벤션센터  
9.19

디자인상품 전시 판매  
비엔날레관  
9.7~1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검색